

공소청 첫 국감부터 격돌… 與 검찰개혁·野 공소취소 공세

민주당, 공소청 개혁 의지 집중 질의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따져 검찰청 폐지 배경 등 놓고도 설전

여야가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공소청의 변화 의지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 기능 폐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추궁했다.

◆與, 박철우 ‘거악 척결’ 발언 지적… 한동훈 딸 수사 과정도 질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중수청에서는 거악 척결을 못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박 청장은 공소청 출범 후 첫 국감을 맞은 소회를 묻는 과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거악 척결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마저 공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소청이 된 점은 매우 슬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청장은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소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지, 국가에서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의 업무보고가 과거 검찰의 수사 성과를 강조하는 데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 여전히 검찰”이라며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새로 생겼다. 새로 출발한다는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도 따졌다.

한 의원의 딸은 타인이 만든 수확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으로 제작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균택 의원은 “당시 검사는 사범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라고 변명했다”며 “책값이 0.99달러라고 해서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도덕성이 0.99달러짜리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해당 사건을)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서 볼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野, 대장동 항소 포기·李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따져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따져 묻고, 진상조사단의 수사 근거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민전 의원은 “박 청장 하면 저같이 검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대장

동 항소 포기의 주역이라고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는가”라고 물었다. 박 청장은 “그런 고려는 안 했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청장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상급 기관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한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 관련 혐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쌓인 민주당의 복수심과 연결 지으면서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과거 ‘친노 폐족’ 표현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동기를 비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해당 표현의 취지와 맥락을 왜곡했다며 “사실만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하동근, 사장 공모 평가 최하위에도 합격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최하위 평가·자기소개서 비공개 도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합격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모 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를 논의했다는 물음에 부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사장을 향해 “김현지 실장과 사전에 교감을 했느냐”고 물었다. 하 사장은 “안 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하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하 사장이 서류와 면접 평가에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서 모두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접 위원 중 한 명은 하 사장에게 리더십·비전, 분야 지식 경험, 조직 관리 경영, 청렴 윤리, 기업성, 공공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E’를 부여했다. 다른 한 명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하 사장에게 한 단계 높은 점수인 ‘D’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 창출

에 기여하셨던 분들을 공공기관장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적절한 곳에 가셔야 한다. 이간 좀 심하다”며 “어떤 기준으로 뽑으라고 돼 있냐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5항목 전부 다 D등급 아니면 E등급”이라고 지적했다. 하 사장은 “초기 테스트 기준과 최종 선택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 이런 절차는 왜 거치냐”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 에너지를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 하는 곳”이라고 질타했다.

하 사장은 나 의원이 ‘왜 사장 직에 공모했냐’고 묻는 질문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역에서 에너지 교육 운동을 10년 가량 해왔고, 환경 운동을 30년 넘게 해왔다”며 “제가 하는 에너지 교육을 현실화하는데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하 사장이 사장 공모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대부분을 ‘사생활’의 이유로 가리고 제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李, 세계은행 총재 만나 국제협력 강화 논의

개도국 AI·에너지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C) 총재를 만나 “세계은행 업무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가 총재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은행의 지금까지의 국제적 기여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AI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은행 간 협

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와 한국의 경험·전문성을 활용한 개도국 에너지 접근성 개선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한국에 오신 그 목표대로 글로벌 AI(인공지능)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가 총재는 “우리의 파트너십 활동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을 만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산업계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추미애 세 차례 사과에도… 국감장 설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野 “소방관에게 모욕, ‘개사과’ 아난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재차 사과했지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과 사과 과정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 현안과 무관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추 지사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오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감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일정으로 오후 1시에 개회했다. 추 지사는 국감에 앞서 김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근조 리본을 단 채로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추 지사의 사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라면서 “오만한 사과, 마지못해 하는 사과, 등 떠밀린 사과로 비춰진다.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개사과’는 2021년 10월 당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랑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아, 반려견 토리인 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를 건네는 사진과 함께 “토리아 인도사과다”라는 문구를 게시해 논란이 일었던 일에서 나온 단어다. 이후 ‘개사과’는 정치권에서 주로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있을 때 쓰이게 됐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상승 전환

긍정평가, 2.1%p 오른 37.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반등하며 30%대 후반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상승한 37.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p 하락한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번 반등으로 지난주 하락분은 대부분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2.2%p 포인트 하락한 뒤 이번주 2.1%p 오르면서 10월 1주차(37.4%)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는 인천 흥가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 금융 등 민생 정책 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리얼미터 측 분석이다.

/서예진 기자